“당장 100일 출가해보고 맞으면 3년, 10년 해보라. 20대 모두 단기출가하길”

법륜 스님
정토회 지도법사

“진로 고민? 저도 있어요. 그래도 출가는 최선의 선택 누구나 갈 수 있는 길입니다.”

법상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청암사 사중은 와이파이존 20살 출가자에겐 성년식도 고민대신 순간순간 최선을”

고우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 졸업

“단기출가, 내 인생 전환점 힌트 있으면 쉽게 문제풀듯 출가, 인생 문제의 해답지”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

조계종 교육원은 5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을 주제로 출가 콘서트를 개최했다. 이야기 손님으로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을 졸업한 고우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법상 스님,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가 참여했다. 콘서트의 사회는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이 맡았다.

‘출가의 길’ 참 좋은데, 망설임 없이 걸어보세요

조계종 교육원, 5월 26일 첫 출가콘서트 개최

Q. 출가하면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A. 출가수행은 무엇을 얻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행의 목표는 해탈과 열반에 있습니다. 이는 지속 가능한 자유를 의미하죠. 결국 출가는 자유와 행복의 길입니다. 점점 더 자유로워지는 것. 일단 출가를 해보세요. 들으려고만 하지 말고.
〈법륜 스님〉

시종일관 유쾌했다. 진지한 질문과 답이 오가기도 했고, 불교에 대한 호기심 어린 질문에는 이야기 손님들이 위트 있는 토크로 응수했다. 출가의 삶에 대한 관심과 현실 생활 고민이 오고 가며 이야기는 더욱 웅숭깊어졌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응)은 5월 26일 동국대 중강당에서 ‘청춘, 자유를 향한 날개짓’을 주제로 출가 콘서트를 개최했다. 출가 이미지 개선과 의식 고취를 위해 출가 콘서트를 연 것은 종단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날 출가콘서트에는 20~30대 청년불자 등 200여 명이 자리했으며, 이야기 손님으로는 국민 멘토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청암사 승가대학을 갓 졸업한 고우 스님, 동국대 불교학부 2학년에 재학 중인 법상 스님, 김민지 마인드디자인 대표가 참여했다. 콘서트의 사회는 교육아사리 원영 스님이 맡았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현실 고민과 출가에 대한 궁금증을 사전에 준비해 패널들에게 질의했고, 패널들은 솔직담백하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어가며 알기 쉽게 이야기했다.

먼저 방청객들은 현실 생활에서의 고민들을 쏟아냈다. 한치 앞도 안 보이는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대해 같은 20대 출가자 스님들의 대답은 청년 불자들의 공감을 자아냈다.

고우 스님은 “불안할 때도 많고, 걱정도 많다. 하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없다”며 “순간순간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상 스님은 “학교 졸업도 해야 하고, 군입대 걱정도 해야 한다. 그래도 일반 대학생으로 살았으면 더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이라면서 “의도치 않게 출가를 했지만 하고 나니 삶이 변화했다. 출가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실 고민 상담 후에는 본격적으로 출가에 대한 호기심어린 질문들이 나오기 시작됐다. ‘출가를 하지 않아도 부처님 제자로 살 수 있는 데 굳이 출가를 해야 하나’는 질문에는 법륜 스님이 명쾌하게 답변을 했다.

법륜 스님은 “출가하지 않고도 재가 수행자로서 살 수 있도록 부처님은 길을 열어 두었다”면서 “은행원이 은행 돈을 자기 돈으로 보면 안된다. 이처럼 재가 수행자가 되려면 내 여자, 자녀, 돈에 대한 관념과 집착이 없어야 한다. 아니면 재가 수행자 자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가 수행자가 될 수 없다면 이를 격리시켜야 한다. 이게 출가 수행자”라면서 “나는 해보니까 잘 안됐다. 그래서 일찍이 출가 수행자가 된 것”이라고 웃어보였다.

자신의 출가 경험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들도 나왔다. 정토회 100일 출가 경험자인 김민지 대표는 단기출가에 대한 예찬론을 펼쳤다.

김 대표는 “20대 후반에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법상 스님 등 서울 동국대 재학중인 학인 스님들이 불교 교리를 내용으로 한 힙합공연을 펼치고 있다.

청년불자 등 200여 명 참석
인생 고민부터 출가 의미까지
청춘들의 호기심어린 질문들
이야기 손님들 ‘솔직담백’ 토크

“출가 거리감 좁혀… 와닿았다”
콘서트 참석자 호응 · 만족도 높아

났고, 일순간 가장이 됐다. 자살 생각까지 했다. 결국 도반에게 상담하고 단기출가를 하게 됐다”면서 “단기출가는 엄청 힘들었다. 하루종일 몸을 움직였고, ‘일상이 수행’이라는 말을 이해 못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조금은 의미를 알게 됐다”고 술회했다.

이어 “단기출가는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라고 생각할 정도로 출가 이전과 이후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면서 “수학문제를 풀 때 일말의 단초가 있으면 잘 풀린다. 단기출가는 인생의 고민을 풀기 위해 ‘살짝 엿본 해답지’”라고 강조했다.

출가를 주변에 권하겠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김 대표는 “100% 권한다”고 답했다. 아예 자신의 회사에서는 이사 등 임원이 되기 위해서는 단기출가는 필수라고 밝히기도 했다.

청암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올해 구족계를 받은 고우 스님은 변화하는 승가교육 환경에 대해 이야기 했다.

고우 스님은 “출가하면 당연히 휴대폰과 컴퓨터는 사용 못할 줄 알았다. 하지만 시대가 바뀌듯이 승가교육 환경도 변화하고 있다”면서 “청암사 승가대학은 사중 전체가 와이파이존이다. 태블릿 PC로 과제를 제출하고, 동영상 법문과 강좌를 듣는다. 20살 출가자에게는 성년식도 하고, 명절에는 사중 내에서 영화를 보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개인적으로는 한국불교 세계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올해 8월 미국 유학을 준비 중”이라고 목표를 밝히기도 했다.

환계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이에 대해 법륜 스님은 “부처님 당시에도 정상적인 절차를 밟으면 7번까지 환속이 가능했다. 현재 한국불교에서는 환속을 하면 문제가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데 이것은 맞지 않다”면서 “당장 100일 출가를 해보고 괜찮다고 생각되면 3년, 10년 하면 된다. 대한민국 20대가 모두 단기출가를 경험한다면 한국사회가 이렇게 어렵지는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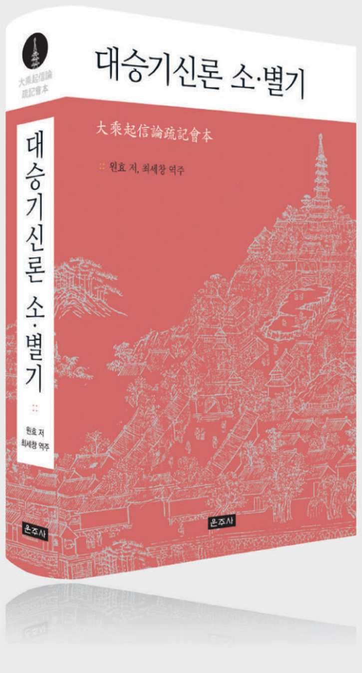
실제 출가를 고민한 학생이 현장 질문한 출가의 마음가짐에 대해서는 일단 경험해볼 것을 일권했다. 원영 스님은 “출가자 마다 사연도 다르고, 마음가짐도 다르다”면서 “혹시 돌아오는 일이 있더라도 내가 지금 선택하려는 길이 고민된다면 그냥 가보라. 출가에 대해 고민한다면 지금 당장 ‘자유를 향한 날개짓’을 해봐도 좋을 것”이라고 충고했다.

이와 함께 이날 콘서트에서는 토크 중간마다 학인 스님의 창작 염불과 힙합 공연 등도 함께 진행돼 눈길을 끌었다. ‘솔직담백’한 토크와 학인 스님들의 문화공연까지 만난 청년불자들은 출가에 대한 거리감을 좁혔다고 입을 모았다.

어머니와 함께 출가콘서트를 찾은 전한열(28, 서울) 씨는 “평소 출가 생활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어머니가 독실한 불자여서 함께 행사장을 찾았다”면서 “출가 여부를 떠나서 불교에 대한 관심을 더 많이 가질 수 있게 됐다. 삶에 대해 숙고할 부분도 찾았다”고 밝혔다.

안윤선(24, 대전) 씨는 “대학을 다니면서 불교를 알게 됐다. 초심자다보니 출가에 대해 관심은 있었지만 거리감을 느껴왔다”면서 “출가에 대해 포기해야하는 줄 알았는데 출가콘서트에 출가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고 나 역시 참여하고 갈 수 있는 곳이라는 것을 알았다. 정말 소중한 경험이었다”고 말했다. **글=신성민 기자 · 사진=노덕현 기자**

대승불교의 정수를 담은 『대승기신론』의
가장 탁월한 주석서인 원효대사의 『소별기』!



대승기신론 소·별기

알기 쉬운 우리말 번역과
1,100개가 넘는 상세한 각주를 통해
누구나 혼자서 책을 이해하고
대승의 정수와 원효대사의 사상을
맛볼 수 있게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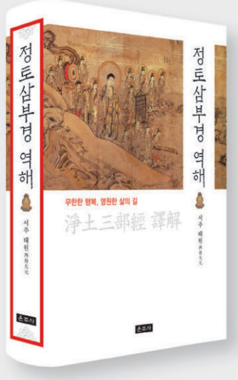
원효 저 | 최세창 역주 | 신국판 양장 | 672쪽 | 값 30,000원

불교 수행법 중 가장 쉽고 성취가 빠른 정토 및 염불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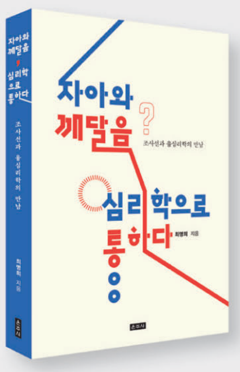
정토삼부경 역해

서주 태원 번역 및 해설 | 신국판 양장 | 632쪽 | 값 30,000원

『무량수경』, 『관무량수경』, 『아미타경』의 가르침을 원문과 우리말 번역, 해설과 주해를 통해 알기 쉽게 만난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에 의지하는 염불수행은 누구나 매우 간단하고 빠르게 무생법인을 얻어 성불할 수 있는 길이다.



융의 분석심리학으로 바라본 선사들의 깨달음!



자아와 깨달음,
심리학으로 통하다

최명희 지음 | 신국판 | 무선 | 380쪽 | 값 17,000원

선사들이 어떻게 자아와 직면하여 깨달음에 이르렀는지, 일화와 어록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조사선을 심리학으로 풀어낸 최초의 책.

도서출판 운주사 ●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 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